***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―***

***서로 사랑함***

**2/13 월**

**요 13:14, 34-35**  
**14** 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,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.  
**34** 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. 서로 사랑하십시오.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.  
**35** 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,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.”

**고후 13:14**  
**14**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요일 1:1-3**  
**1** 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,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.  
**2** (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.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,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.)  
**3** 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.

**요일 4:8, 16**  
**8** 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.  
**16** 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니,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.

**2/14 화**

**요 3:16**  
**16** 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**요일 4:9-10**  
**9** 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,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.  
**10** 사랑은 이렇습니다.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.

**딛 3:4-5**  
**4** 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,  
**5** 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,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.

**갈 2:20**  
**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히 4:16**  
**16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

**엡 2:4-5**  
**4** 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,  
**5** 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(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)

**2/15 수**

**롬 5:5**  
**5** 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
**요일 2:7-8**  
**7** 사랑하는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,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,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.  
**8** 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.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**요일 3:11, 23**  
**11** 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 
**23** 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.

**롬 8:37-39**  
**37** 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.  
**38** 나는 확신합니다.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 
**39** 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,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**렘 31:3**  
**3** 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. “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.

**2/16 목**

**요일 4:11-15, 17-21**  
**11** 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,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  
**12** 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,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.  
**13** 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.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.  
**14** 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, 지금 또 증언합니다.  
**15** 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,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.  
**17** 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 
**18** 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,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.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.  
**19** 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  
**20** 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.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뵙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 
**21** 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.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.

**2/17 금**

**요일 3:14**  
**14** 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.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.

**마 16:24-25**  
**24** 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,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.  
**25** 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,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

**엡 5:1-2**  
**1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.  
**2** 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,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,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.

**요이 4-6**  
**4** 나는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.  
**5** 부인, 이제 나는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,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,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써 보내면서 그대에게 당부합니다.  
**6** 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. 계명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.

**계 3:7-8**  
**7** 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. ‘거룩한 이, 참된 이,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,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.  
**8** 나는 너의 일을 안다. 보아라,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.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**2/18 토**

1. **요 15:5, 9-17**  
   **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 
   **9** 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,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.  
   **10** 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,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.  
   **11** 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,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 
   **12** 나의 계명은 이것인데,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.  
   **13** 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 
   **14** 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,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.  
   **15** 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는데,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.  
   **16** 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,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,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,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,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 
   **17** 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2. **2/19 주일**
3. **요일 3:16-21**  
   **16** 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.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,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.  
   **17** 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, 자기 형제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 버린다면,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?  
   **18** 어린 자녀 여러분,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,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.  
   **19** 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,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.  
   **20** 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,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.  
   **21** 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,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,
4. **요일 5:1-3, 16**  
   **1** 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,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.  
   **2** 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,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 
   **3** 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.  
   **16** 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. 그러면 그가 그 형제,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.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,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.
5. **2023. 2. 13 ~ 2023. 2. 18**
6. 단체로 읽을 말씀: *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*, 11장
7. **찬송: 876 (英) 주님의 지체로서  (中:629)**
8. ***The Church in New York City***churchinnyc.org